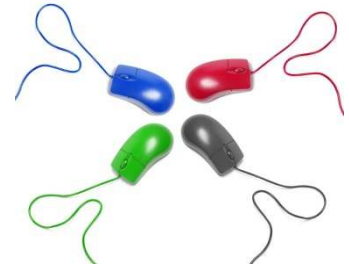


## Deloitte Newsletter



2014 년 3 월

###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회계법인, 감사기업 확보전 뜨겁다

올해는 2010년 감사인 6년 의무교체 제도가 폐지된 이후 3년이 지나 첫 번째 교체주기가 됩니다. 연초에 530개 상장기업이 감사법인을 다시 선정해야 하고 특히 시가총액 5위권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3개 기업의 감사법인 계약이 만료되는 등 주요 대기업들의 감사인 선정 작업을 앞두고 회계법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일은 국내 회계법인 업계 1위라는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맨투맨식 영업전략을 펼치고, 삼정은 진념, 전 장관 등 거물급 고문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맨파워에 기반한 영업전략을 펼치는 등 회계법인별 영업 전략이 어떤 성과를 나타낼지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 1조원대 대형 M&A가 승부 갈라 ... JP모간 등 외국계 3개사 독식

2013년 인수·합병(M&A) 금융자문 부문(거래 종료 기준)에서 JP모간·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3인방이 나란히 1~3위를 독식했습니다. 회계자문 부문에서는 삼일 PwC가 1위에 올라 전년도 삼정 KPMG에 내줬던 왕좌를 되찾았고, 금융자문 부문에서도 수주 건수로는 최대인 29건의 인수·매각자문을 맡아 4위에 올랐습니다. 외국계 강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JP모간은 2조 4426억원 규모의 삼성코닝정밀유리 지분 매각과 티켓몬스터 매각 본계약을 성사시켰고, 올해 본계약 체결을 앞둔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자문을 맡은 크레디트스위스도 '다크호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EY한영, 파인스트리트와 업무 제휴...협력관계 급진전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EY한영이 대체투자전문회사인 파인스트리트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업무

제휴를 통해 EY 한영은 자산관리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파인스트리트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회사 측 설명입니다. 김인수 파인스트리트 자산관리 대표는 “자산관리 등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아왔다”며 “글로벌 빅 2 회계법인인 EY의 지식과 정보 역량을 결합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

한국과 인도가 1월 16일 상대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이전가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이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해운 소득의 원천지국(경제 활동을 하는 국가)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해 한·인도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와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해 조세 회피 방지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로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으로 위원회가 각각 구성됐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선임했으며,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이 구성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고, 앞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세법개정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보완을 거쳐 2014년 1월 1일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 세법개정의 주요 방향은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제고, 세입기반 확충에 있으며 법안 공포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일부 조문은 시행일 별도 표시)될 예정입니다.

### ■ 법인세법 개정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제 24 조 제 4 항)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 (제 37 조 제 1 항)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제 47 조 제 3 항)

### ■ 부가가치세법 개정

-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 (제 10 조 제 8 항 제 2 호 단서 신설, 안 제 38 조 제 1 항 제 1 호, 제 52 조 제 4 항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허용 (제 7 조 제 1 항)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 (제 11 조)
-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 (제 12 조 제 1 항 신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제 25 조의 2 제 1 항)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 (제 25 조의 3)
- 장애인 또는 60 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 공제금액의 한도 인상 (제 26 조)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 신설 (제 30 조의 2)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등 (제 121 조의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제 127 조)
- 과세표준 1,000 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 퍼센트에서 17 퍼센트로 상향조정함 (제 132 조 제 1 항)

## ■ 지방세법 개정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 분의 50 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제 103 조의 19 및 103 조의 20 신설)

## 美 회계법인 한국 첫 진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처음으로 미국 회계법인이 국내에 진출합니다. 이미 글로벌 4 대 회계법인인 PwC · 딜로이트 · KPMG 등이 각각 삼일·안진·삼정 회계법인 등과 멤버십 계약을 통해 국내에 진출해 있지만, 한국에 직접 사무소를 내고 진출하는 미국 회계법인은 CKP 가 처음입니다. CKP 한국 사무소의 주 업무는 국제 조세와 미국 조세가 될 전망입니다. 국제 조세 업무는 국제 조세협약 또는 2 개국 이상의 세법에 따라 조세 자문을 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미국 조세 업무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컨설팅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SM·YG·삼일회계·스타벅스도 전경련 회원사 됐다

전경련은 2 월 11 일 서울 여의도 FKI 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54 개 기업을 신규 회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전경련 회원사는 498 개사에서 553 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새 회원사는 중견기업과 외국계,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입했습니다. 서비스업종 기업으로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국내 4 대 회계법인과 여행사 하나투어, 세종문화회관 등도 회원사로 합류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에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라며 “네이버 등 IT 기업들과 게임 관련 업체들을 영입하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http://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https://www.facebook.com/DeloitteKorea)